

시론

우주의 춤사위

한 스님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만난 작가들은 모두가 이 중적이었습니다. 그가 작품 속에서 내세우는 이상과 현실적인 삶의 모양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

입니다. 그것이 어디 원효스님의 걸림없음 하고 같은 것입니까? 오만방 방자한 막행막식이지요. 그 오만방 자잡으로 말미암은 죄를 자옥에 가 서 어떻게 다 받을 것인가... 저는 소름이 끼쳐지곤 합니다."

오만이라는 죄

괴이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고, 어부들은 그것을 모래밭으로 끌어올렸다. 백 개의 머리를 가진 물고기였다. 원승이 뱀 말여우 돼지 토끼 사자 호랑이 말소 기린 독수리 잉어 고라니 노루 사슴 낙지 따위의 머리를 한 개씩 달고 있었고 몸통과 꼬리는 고래의 몸통 꼬리 그것이었다. 그 괴이한 물고기는 모래밭으로 나오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탈하게 시작했다.

작가의 이중적인 생각

거기에 대하여 내가 변화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닌 어찌할 수 없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사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일 터인데, 그래도 작가는 사람답게, 자기 자신의 실재로 살지 못하지만 자기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또 절망했으면 주인공들을 통해서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겠어요? 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제가 수도하는 스님들을 좋아하는 것도 스님들이 도를 닦으면서 거듭 절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서 덧붙였다.



한승원 <소설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제가 만나곤 하는 어둠(迷妄)의 깨움은 양과 결집하고 비슷할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소식을 하고나서는 다시 한소식을 하고 또 한소식을 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고... 한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소름 기가' 하고 같다고 어느 스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몸을 뜯어먹던 소들은 대개 더 쉽게 뜯어먹을 수 있는, 훨씬 달고 고소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두르고 나아가려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소름끼는 사람은 얼른 고삐를 잡아당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특히 저같은 속인, 또 속 녀석까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소식을 하고는 원효스님이 그랬듯이 절립없이 살아버린단 말

이 카발라는 정생애 브라만 출신의 스님이었다. 카발라는 영리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여러 고전들과 경전에 나오는 지혜를 일찍이 습득했는데, 자기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주위 사람에게 늘 '이 미련스러운 닭대가리아, 이 개대가리아, 호랑이보다 못한 대가리아, 아이고 원승이대가리아...' 하고 빈정거리면서 비웃었지. 그러다가 죽어갔는데, 그 오만한 언이 쌓이고 쌓여 다음 생에서 이러한 총칭한 수증과괴물이 된 것이니라."

윤회의 모양새

화장실이나 욕조에 담겨 있던 물이 빠져나갈 때는 소용돌이 친다. 소용돌이의 날개의 방향은 달리기 선수들이 트랙을 도는 방향하고 같고, 바람개비의 날개와 같고, 태풍의 눈과 같고, 불교의 만(圓)자 하고 같고, 태극무늬하고 같고, 만다라의 형의 호를하고 같다. 업보의 흐름이나 윤회의 방향도 그와 같은 터이다.

열린마당

남방불교 범회의식

반야심경과 사후사원이 없는 범회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남방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몇몇 스님들이 황색가사를 입고, 신도들이 위빠사나 수행법을 배운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범회 및 예불의식까지 남방불교의 예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속된 종단의 전통적인 범회의식을 외면해 신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부처님 당시의 의식을 찾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방불교 범회의식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남방불교 예불의식으로 새벽예불을 올리는 부산 태종사 스님들.

"부처님가르침 생활실천 유도"

마성 <가사주지>

지금까지 남방불교를 학문적으로만 연구해 왔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 차원을 넘어 수행과 신앙의 형태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남방불교에서 직접 구족계를 받았거나 혹은 수행하고 돌아온 스님들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남방불교의 전통에 따라 범회를 봉행하고 팔리어 경전을 암송하며, 위빠사나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들의 활동과 함께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남방불교의 의례와 수행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방불교의 신앙형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북방불교의 범회 및 예불의식은 예배·찬탄·발원·참회·회향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 부처님께 쌓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양으로 여긴다. 한국불교가 가부장적인 불교와 제사 중심의 의례로 되어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남방불교에서는 신앙형태도 단순할 뿐만 아니라 기복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공양'의 경우 불전에 쌓을 올리기 보다는 탁발승들이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남방불교의 범회의식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재가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짜여져 있다. 재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란 믿음·지혜·배움·계율(오계와 팔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불교이며 제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방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대교과대학회와 경남대교직원사회에서 1년 남짓 남방불교 범회의식을 지도해 오면서 처음에는 언어적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면 중년을 넘어선 여성 신도들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년불자와 지성인 불자들이 남방불교 예불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방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스님들은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수승한 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남방불교는 초기교단의 율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수행법과 의례는 이미 2500여년간 검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의례와 상충 신도들 혼란"

송묵 <동원정사주지>

어느 종교든 고유의 의식은 그 종교의 특징인 동시에 궁극의 지향점을 반영하는 절대적 의미를 포괄한다.

남방불교 의식을 그대로 범회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전통의례와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검증이 필요하다. 종교의식은 오랜 시간을 지내오며 전승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한국불교의 범회의식도 불교가 전래된 이후 1천6백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의 그물을 통해 걸려나온 것이 결정체이다. 지금의 범회의식은 <석문의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반야심경 등은 선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여러 의식에서 독송되었으며, 중국 일본도 범회에서 독송하고 있다.

남방불교 수행법과 의식이 한국불교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불교와의 상이점이 보완되는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종단의 의례에 어긋난 의식을 봉행한다는 것은 종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찰에서 남방불교 의식으로 범회를 봉행한다는 것은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불교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선과 교의 융합적 수행 전통을 유지해 온 우리 불교의 역사에서 남방불교 범회의식이 장려되는 것은 상당



한 혼돈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조계종 사찰에 다니는 어느 불자가 남방불교 범회의식을 봉행하는 사찰을 찾았다고 해보자. 그 신도는 그 사찰을 보고 불교를 표방했지만 사비불교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매우 혼동스러워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불교가 전해져 내려온 종파와 역사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불자의 정서가 남방불교의 의례를 받아들일 만큼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 보는 일도 중요하다. 아직 우리의 불교는 전통적 의례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갖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예불과 범회 등 의례의 전통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종단 차원에서 의례의 통일을 위해 <동일법요집>을 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불교 고유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 의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선과 교의 융합적 수행 전통을 유지해 온 우리 불교의 역사에서 남방불교 범회의식이 장려되는 것은 상당

남방불교 예불의 특징

행하는 사람들은 팔리어 예불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하루, 보름날과 등과 같이 많은 수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범회에서는 주로 한글로 음역·번역된 팔리어 예불문을 사용한다. 남방불교의 예불의식은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독송하지 않으며 불구 사용도 않는다. 예불의식은 삼귀의 삼장을 시작으로 삼보에 대한 찬탄, 믿음·지혜·행·품·계를 등 4가지 의지할 것에 대한 회상, 반야심경 독송대신 자비경, 길상경,

삼귀의대신 삼귀삼창

반야·천수경 독송 안해 위빠사나 수행법 실천 삼보배경등이 때에 맞게 독송된다. 자비경, 길상경 등은 "와서 보라"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자신을 극복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커다란 행복" 등과 같이 실제적인 어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또 예불의식에서 절을 할 때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만을 구부린다. 이것은 몸의 움직임을 줄여 마음의 고요을 지키고 예불의식 자체에 대한 집중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이외에도 스님들은 새벽 5시 예불을 시작으로 경선, 명상, 율력 등의 수행이 빈틈없이 짜여진 일과에 맞추어 생활하며 오후 불식을 지키고 있다. 또 일주일에 1번씩, 1달에 1번씩 신도들과 함께 '자자(自讚)'를 통해 행상, 계율, 재경문 제 등에 대한 반성과 계획을 세운다. 오종욱·천미희 기자 (gobaou@buddhania.com)

Advertisement for 'Wu' (玉) health products. Title: '전강에의 신비! 옥'. Subtitle: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Text: '치녀가 옥을 절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엔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반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수능 쥐의 정자가 40% 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질병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의 나머지는 37%~84.8%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 등.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러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북오옥)

Advertisement for 'Ginseng Art' (金堂藝建). Title: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Text: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사무실: (053)639-0407 ~ 8 F A X: (053)639-0407.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Advertisement for 'Ban-ya Shim-kyeong' (반야심경). Title: '순수한 경만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판체'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Text: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0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이그림, 佛자그림 (수액판 차단) 특별보사. 0 목판·등판·인쇄 복사본 보다 생필인 진본이 영기와 영향이 더 있습니다.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02)242-0331, 242-0255 (0)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준순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Advertisement for 'Piramit Hiran-ya' (피라미트 히란야). Title: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Text: '피라미트 안에서 영성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우주문명과 피라미트 히란야. 문덕 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